

'KS 가늠자'...전반기 1위 수성 '사활'

KIA, 전반기 마지막 달구벌 빅매치

하늘이 도운 보약같은 휴식 최상의 선발 라인업 출사표 코치진 쇠신 정신력 재무장 "뒤집기는 없다" 총력 승부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반기 1위 확정에서 사활을 건다.

2024시즌 프로야구가 이번 주 반환점을 향한 가운데 KIA는 2-4위권과 여전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1일 현재 KIA는 45승33패2무로 2위 LG에 1.5게임차 앞선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3위 삼성과는 2게임, 4위 두산과는 3.5게임차다.

이번 주 KIA는 전반기 마지막 상대인 삼성과 선두 자리를 놓고 원정 3연전을 갖는다.

3경기를 마치고 나면 오는 9일 재개되는 후반기까지 나흘간 휴식기에 들어가는 만큼 KIA는 1승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삼성도 자리바꿈이 가능한 승차인 만큼 안방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위 LG 역시 최하위 키움을 제물로 막판 순위 뒤집기를 노린다.

전반기 1위는 나름 의미가 있다.

2014시즌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반기 1위 팀의 정규시즌 우승 확률은 무려 90% (10차례 중 9차례)다. 2019시즌 SK를 제외하고 모두 1위로 한국시리즈로 직행했다. 또, 같은 기간 전반기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쥔 것도 총 7차례나 된다.

특히 KIA는 2017년 전반기 1위를 마친 뒤 정규리그 1위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석권한 경험 있다.

KIA가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가져간다면 7년 만에 대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네일 알드레드 윤영철 양현종 (KIA 타이거즈 제공)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최근 KIA의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지난 주 하위팀을 상대로 역대급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강팀다운 이미지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8위 롯데와의 사직 첫 경기에서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5-15로 간신히 비기는가 하면, 꼴찌 키움과의 첫 경기에서도 올 시즌 최악의 실점을 기록하며 6-17로 참패하는 등 연일 출전을 펼쳤다.

하위팀과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은 총 49점에 이르고 1루 3패를 기록, 단 1승도 못 챙겼다. 주전 투수들의 부상이탈에 따른 마운드 과부하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주말 2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한숨을 돌렸고, KIA 마운드도 재충전 후 삼성과의 3연전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KIA 구단 측도 지난 주말 수석코치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며, 분위기 쇠신의지를 나타냈다.

올 시즌 어렵사리 지켜온 선두 자리를 전반기 끝무렵에 빼앗길 순 없는 노릇이다. 삼성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1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45	33	2	0.577	0
2	LG	45	36	2	0.556	1.5
3	삼성	44	36	2	0.550	2
4	두산	44	39	2	0.530	3.5
5	SSG	41	40	1	0.506	5.5
6	NC	38	41	2	0.481	7.5
7	롯데	35	40	3	0.467	8.5
8	한화	35	42	2	0.455	9.5
9	kt	36	44	2	0.450	10
10	키움	33	45	0	0.423	12

최악의 한주를 보낸 KIA가 이번 주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반기 1위로 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중 3연전을 마친 프로야구는 나흘 동안 휴식을 치르며 전열을 정비한 뒤 9일부터 후반기 열전에 돌입한다.

그 사이 6일에는 인천에서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열려 팬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주홍철 기자

파리올림픽 태극전사가 된다 ① 양궁



지난달 26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전훈영(오른쪽), 임시현(오른쪽 두 번째), 남수현(왼쪽)이 하이 파이브를 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제공>

여자단체전 10연패 '정조준'

전 종목 석권 도전...까다로운 유럽 날씨 '변수'

양궁은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온 종목이다.

1972년 뮌헨 대회부터 나온 45개의 양궁 금메달 중 절반이 넘는 27개를 한국이 가져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것을 비롯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씩을 따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단체 4개 금메달을 독식하며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한국 선수단이 험난한 메달 레이스를 펼칠 거로 보이는 이번 대회에서도 양궁만큼은 '효자 종목'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대한체육회가 양궁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대표팀은 늘 그래왔듯이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등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씩씩' 해내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표팀과 대한양궁협회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험거운 승부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 양궁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온 적이 없다. 불규칙적으로 부는 바람과 잦은 비가 승부에 의외성을 증대시켜 태극선수들과 다른 강자들 간의 실력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곤 했다.

강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가운데 중국, 대만, 인도 등이 한국과 더불어 전 종목 출전권을 따낼 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점도 변수다.

10년 넘게 남자 양궁 최강자로 군림해온 김우진(청주시청)과 도쿄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김재덕(예천군청),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우석(코오롱)이 남자 대표팀을 구성한다.

여자 대표팀에서는 항저우에서 37년 만의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한국체대)을 필두로 남수현(순천시청), 전훈영(인천시청)이 올림픽 사로에 선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여자 대표팀은 이 종목 10연패에 도전한다.

양궁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파리의 옛 군사시설인 앙발리드다. 개막식 전날인 25일 예선 라운드를 치르고, 28일 여자 단체전, 29일 남자 단체전, 7월2일 혼성전, 3일 여자 개인전, 4일 남자 개인전 결승이 각각 열린다. /연합뉴스

"연패 끊었다"...다시 연승 "가즈아"

광주FC, 제주戰 2대1

제주와 순위 바뀔 7위로 상위 스플릿 진입 '정조준'



프로축구 광주 FC가 제주유나이티드를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2라운드 제주 UTD와의 경기에서 신창무의 선제골과 가브리엘의 결승골을 앞세워 2대1로 승리했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제주와 순위를 맞바꾸며 7위로 뛰어올랐다.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제주를 흔들던 광주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7분 정호연의 침투 패스를 이어 받은 신창무가 박스 앞까지 접근해 강력한 슈트를 날렸다. 이 슈트가 반대 골문으로 그대로 꽂히며 선제골로 기록됐다. 신창무는 골을 배 안에 넣고 달리는 '베이비 세리머니'로 리그 첫 골의 감격을 만끽했다.

이어 전반 10분 가브리엘이 드리블 후 때려낸 회심의 슈트는 골키퍼 김동준의 선방에 막혔다.

제주의 날카로운 반격을 잘 막아내던 광주가 한 순간의 실수로 동점을 내줬다.



광주FC가 가브리엘이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 UTD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반 22분 광주는 골키퍼로부터 시작된 빌드업 과정에서 제주에게 공을 빼앗겼고, 빼앗은 공을 이어받은 임창우가 광주의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날렸다. 이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수비 머리와 제주 공격수 안태현 몸을 연이어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박태준과 브루노를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초반 5분 동안 신창무와 최경록의

슈팅으로 추가 득점을 노렸으나 제주 골문을 뚫지 못했다. 광주는 좀처럼 슈팅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후반 19분 이희균을 투입했다. 후반 25분 프리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올린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대위로 뒀다.

광주는 후반 36분 베가를 빅토로 교체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제주의 골문을 두드리던 광주가 후반 44분 광평하던 승부의 균형을 깼다.

김진호가 왼쪽 측면에서 쏘아올린 크로스가 가브리엘을 향했고, 가브리엘이 살짝 밀어 넣은 공은 골라인을 통과했다.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5분 제주의 파상공세를 육탄 수비로 막아내며 분전했다.

종료 직전 제주에게 프리킥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으나 서진수의 날카로운 슈트를 김경민이 막아내며 험거운 승부를 2대1로 매조지었다. /백희중 기자



무안군민체육센터내 실내체육관 전경 <무안군청 제공>

현대건설 배구단, 무안서 전훈

9-13일 팬 사인회·재능 기부...AI페퍼스와 연습경기도

무안군은 1일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여자프로배구단 선수단이 9일부터 13일까지 하계 전지훈련으로 무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3-24 V-리그 통합우승팀인 현대건설 여자배구단은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기술 훈련을 시작으로 무안항토깃벌랜드에서 깃벌 훈련 등 체력 훈련과 보건소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트레이닝 등 각종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 배구팬을 위해 11일에는 배구교실을 열고 전남·광주 배구 동호회와 학생을 대상으로 배구 기본 기지도 등 재능기부에 나선다.

특히 12일 오후 3시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AI페퍼스 배구단 선수들과 연습경기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인 양호진, 김다인, 이다현, 정지윤 등 현대건설 배구단 유명선수들이 배구 팬들과 함께하는 팬 사인회가 열린다. 김산 무안군수는 "현대건설 배구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무안은 동안 무안의 멋과 맛을 만끽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AI페퍼스 배구단과의 연습경기 및 사인회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